

## 대학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강도와 사회참여의 상관관계

김태준, 박윤주, 이슬기, 이윤희, 지시연, 전병진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 — 국문초록 —

목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강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사회참여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 강원도 소재의 K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NS 강도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SNS 친구 수와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로 측정되었다. 사회참여 측정도구는 Godelief 등(2009)에 의해 수정된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MSPP)를 사용하였다. MSPP는 공식적 사회참여(약속활동), 비공식적 사회참여(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 가족과의 접촉)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SNS 친구 수와 약속활동 항목,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 항목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결론: 대학생들의 SNS 강도와 사회참여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SNS 강도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 유지에는 영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대학생, 사회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SNS 강도

## I. 서론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으로 나뉠 수 있다(WHO, 1999). 최근에는 건강에 대하여 생물학적인 조건보다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모델이 각광을 받으면서 사회적 건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im, 2012). 사회적 건강은 사회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상태이다(Lee, 2006). 사회활동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의미

있는 활동,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교류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참여 행위를 의미한다(Son & Cho, 2005). 사회참여는 공식적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단체 및 기관 가입, 일자리 참여 등의 공식적 활동은 물론 친구, 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망과 사회적 상호작용, 종교 활동 및 자원봉사, 각종 모임참석

등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Kwon & Sohn, 2010).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hin & Lee, 2012). 개인에게 있어 SNS는 자기 홍보 도구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Hwang & Park, 2011). SNS의 급속한 보급은 전통적 방식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며(Nam & Kim, 2011), 오프라인 관계가 SNS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워진다고 한다(Baym, Zhang & Lin, 2004; Coyle & Vaughn, 2008; Hsu & Tai, 2011). 또한 SNS를 활용하여 모바일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IT 기술의 등장과 함께 그 이용 동기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중 사회참여가 중요한 이용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Cross & Parker, 2004).

김윤화(2016)에 따르면 연령대별 SNS 이용률에서 20대의 SNS 이용률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최동규(2011)는 SNS 이용 동기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고, Ha(2008)는 인터넷 이용 정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고, Cho(2014)는 SNS 사용 시간과 온라인 참여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으며, 정동석(2013)은 대중매체나 소셜미디어가 자원봉사 같은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렇듯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SNS 이용 시간 또는 이용 동기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SNS의 이용 강도-친구 수, 연락횟수-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SNS의 강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사회참여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9)

		N(%)	(Mean±SD)
Gender	Male	33(25.6)	
	Female	96(74.4)	
Grade	1	41(31.8)	
	2	37(28.7)	
	3	24(18.6)	
	4	27(20.9)	
Residence	Domitory	115(89.1)	
	Board oneself	14(10.9)	
Character	Very introvert	11(8.5)	
	Introvert	32(24.8)	
	Normal	55(42.6)	
	Extrovert	22(17.1)	
	Very extrovert	9(7.0)	
Go Home	Zero	29(22.5)	
	One Time	56(43.4)	
	Two Times	28(21.7)	
	Three Times	10(4.7)	
	Four Times	6(7.8)	
Age	-	-	20.59±1.63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강원도 소재의 K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성 33명(25.56%), 여성 96명(74.41%)으로 총 129명이다. 학년은 1학년이 41명(31.79%), 2학년이 37명(28.67%), 3학년이 24명(18.60%), 4학년이 27명(20.93%)이다. 거주지는 기숙사 115명(89.14%), 자취 14명(10.85%)이다. 성격은 매우 내향적 11명(8.5%), 내향적 32명(24.8%), 보통 55명(42.6%), 외향적 22명(17.1%), 매우 외향적 9명(7.0%)이다. 집에가는 횟수는 0번 29명(22.5%), 1번 56명(43.4%), 2번 28명(21.7%), 3번 10명(4.7%), 4번 6명(7.8%)이다. 평균 연령은 20.59세이다.

### 2. 연구도구

#### 1)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 MSPP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사회참여 측정도구는 Godelief 등(2009)에 의해 수정된 MSPP를 사용하였다. MSPP는 실제 사회참여를 위한 일반적인 자기관리를 측정 및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Godelief 등(2009)에 의하면 MSPP의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공식적 사회참여와 비공식적 사회참여로 나뉜다. 공식적 사회참여는 약속활동(Undertaking activities: 10 문항)으로 레스토랑 방문, 클럽과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비공식적 사회참여는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Contact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 8문항), 가족과의 접촉(Contact with family: 8문항)에 대한 하위 항목으로 주변사람들과 이루어진 활동을 나타낸다. 문항의

점수체계는 지난 4주 동안의 실제 사회에 참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없음'(4주 동안 0회), '주당 1회 또는 그 이하'(4주 동안 1~3회), '주 당 1~2회'(4주 동안 4~8회), '주 3회 이상'(4주 동안 9회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SPP에서의 평가자 간 신뢰도는 0.63~0.83이었다. 구성타당도는 세 하위영역 모두에서 Cronbach's alpha >0.60으로 수용되었다(Godelief et al., 2009). 본 연구의 문항 간 신뢰도는 0.71~0.83이었다(Table 2).

#### 2) SNS 강도

본 연구에서 정의한 SNS 강도는 SNS 이용 횟수, 친구 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SNS 강도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SNS 친구 수와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로 측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NS 친구 수는 페이스북 친구수와 카카오톡 친구수로 하였다. 그리고 평균연락횟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사람의 숫자로 하였다. 게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학과 공지방, 택배 카카오톡 같은 친분이 없는 사람과의 연락은 제외하였다.

### 3. 자료 수집

예비 연구는 2015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일주일간 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비연구를 통하여 자료수집내용을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 본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총 136명 중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7명을 제외한 총 129부를 수집하였으며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SNS 친구 수는 기록지에 일괄적으로 기록하게 했고, 카카오톡 평균횟수는 일주일간 매일 밤 11시에 하루 동

Table 2.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Item number(N=26)	Cronbach's $\alpha$
Undertaking	10	0.71
Friends	8	0.75
Family	8	0.83

안 연락한 횟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성별 및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은 *t*검정과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SNS 강도와 사회참여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alpha$ 는 0.05로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학년에 따른 사회참여의 평균 차이

학년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평균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학년이 낮을수록 약속활동과 가족과의 사회참여는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 친구와의 사회참여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약속활동,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 가족과의 접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05$ ).

#### 2.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와의 평균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와의 평균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남성(29.15±14.26)이 여성(19.48±11.41)보다 약속활동에서 사회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5$ ). 하지만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 항목과 가족과의 접촉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

Table 3. Social Participation Differences by Grade (N=129)

	class1(N=41) M±SD	class2(N=37) M±SD	class3(N=24) M±SD	class4(N=27) M±SD	F	p
Undertaking	23.61±12.68	23.30±12.39	23.54±12.39	16.19±13.25	2.37	.07
Friends	39.95±11.96	42.08±11.11	37.00±13.05	37.33±15.91	1.07	.36
Family	30.17±14.57	25.86±15.49	24.79±11.21	23.56±16.67	1.33	.27

Table 4. Social Participation Differences by Gender (N=129)

	Male(N=33)	Female(N=96)	t	p
Undertaking	29.15±14.26	19.48±11.41	-3.93	.00
Friends	40.12±14.39	39.24±12.38	-.39	.74
Family	25.45±13.96	26.93±15.16	.49	.62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NS and Control Variables (N=129)

	Undertaking	Friends	Family
Facebook Friends	.27***	.17	.02
Kakaotalk Friends	.22*	.09	-.05
Kakaotalk Mean	.09	.18*	.01
Gender <sup>a)</sup>	.33***	.03	-.04
Character <sup>b)</sup>	.11	.18*	-.02
Go Home <sup>c)</sup>	.21*	.22**	.43***

\*\*\* $p<0.001$ , \*\* $p<0.01$ , \* $p<0.05$

a) 0=Male, 1=Female

b) 1=Very Introvert, 2=Introvert, 3=Normal, 4=Extrovert, 5=Very Extrovert

c) Recently the number of go home within 4 weeks

### 3. SNS 강도 및 통제변수에 따른 사회참여

SNS 강도 및 통제변수에 따른 사회참여는 Table 5와 같다. 페이스북 친구 수는 약속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p < .001$ ), 카카오톡 친구 수는 약속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p < .05$ ). 카카오톡 횟수는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 항목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p < .05$ ). 사회참여에 미치는 변수로 성별, 성격, 집에 가는 횟수로 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성격은 친구 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5$ ), 외향적일수록 친구와의 사회참여가 많은 편이다. 성별은 약속활동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1$ ), 남자가 약속활동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다. 집에 가는 횟수는 약속활동( $p < .05$ ), 친구( $p < .01$ ), 가족( $p < .001$ ), 결과적으로 사회참여와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p < .001$ ).

## IV.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강도와 사회참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의 사회참여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SNS(카카오톡, 페이스북)의 친구 수와 약속활동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SNS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온라인에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Coyle & Vaughn, 2008;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6; Hoffman, 2008), 현실에서의 친밀한 관계와 SNS 교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Grinter & Palen, 2002; Leung, 2002; Schiano et al., 2002)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의 친구 관계가 온라인에서도 같은 친구 관계로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SNS 상호작용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NS를 통한 대인적 상호작용이 실제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Kwak & Lee, 2012). 이런 기존의 연구들은 SNS는 오프라인의 관계를 반영하며 온라인에서 상호작용이 실제의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스포츠 동아리 참가 대학생이 비참가 대학생 보다 사교성, 활동성, 자율성 등의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성향이 높다(Hwang, 2003; Kim & Hong, 2004)고 보고한 선행 연구에 따라 동아리와 같은 참여 활동이 대

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SNS의 친구 수가 많다는 것은 동아리나 동호회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고 SNS 상의 친구수를 증가시켜 그들과 같이 사회참여를 하면서 약속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메신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한다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신저 이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Jo, 2004). 또한 허수미(2012)에 따르면 카카오톡 사용이 증가하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채팅방을 만들어 사적 혹은 공적인 대화를 지속하면서 꾸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카카오톡이 지인들과 소통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보다 쉽게 친구 및 지인들과 안부를 묻거나 만남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 카카오톡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에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SNS 강도와 가족과의 접촉 항목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 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는 SNS 친구 수에는 가족의 수도 포함되는데, SNS 친구 수는 무한적인 반면에 가족 구성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카오톡 연락횟수가 많아질수록 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수 밖에 없어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성별과 약속활동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김종덕(2014)이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주로 휴식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남성은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스포츠참여활동 등 여성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5.90%)은 여성(7.60%)에 비해 동호회활동 경험이 많았고, 주로 등산이나 축구 등의 야외활동 관련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횟수로 보았을 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기적 활동을 하는 반면에, 영화 관람이나 박물관 견학 같은 여가활동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남녀의 여가활동에서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의 사회참여 항목인 약속활동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들의 성격과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에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oi(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내·외향성은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 변인인 일반적 관계, 교수관계, 친구관계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사교적이고 친구와 함께하는 외부활동에 적극적이며,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많고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와 함께 문화생활을 하여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집에 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모든 사회참여 항목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진행된 지역의 특수성이 큰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진행된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관광 시설은 있으나 대학생들이 누릴 만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강원일보(2016)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시설부족과 교통 접근성 불편, 상가시설의 부족과 같은 이유로 대학생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숙사 및 자취생활을 하고 있으며 통학을 하는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다. 본 지역의 특성상 문화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거주지로 가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대상자는 평일에는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 집을 감으로써 본 지역에서 누리지 못한 문화생활에 많이 참여하며,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하나의 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인원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SNS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연구에서는 SNS 강도와 사회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수정, 보완하여 더 정확한 SNS 강도의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K대학교 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SNS 강도와 사회참여의 하위 항목인 약속활동,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 가족과의 접촉을 토대로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SNS 친구 수와 약속활동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둘째,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및 지인과의 접촉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SNS 강도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 유지에는 영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

- 김윤화. (2016).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07).
- 김종덕.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특별자치시, 한국 : 문화체육관광부
- 정동석. (2013). 소셜미디어 이용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 시민적 연계활동을 중심으로(석사). 고려대학교, 서울.
- 최동규.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평가를 중심으로(석사). 고려대학교, 서울.
- 허수미. (2012). 모바일 메신저 앱의 이용정도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만진. (2016). “대학로 침체 원인은 놀거리·먹거리 부족”. Retrieved from Research on Poverty Alleviation website : <http://m.kwnews.co.kr/nview.asp?AID=216032000031&nv=1>
- Baym, N. K., Zhang, Y. B., & Lin, M. C. (2004). Social Interactions across Media: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Face-to-Face, and the Telephone. *New Media Society*, 6(3), 299-318. doi:10.1177/1461444804041438
- Cho, M, J. (2014). *The influence of mobile SNS social capital type in smart phone up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Master's thesis). Chung-ang

- University, Seoul.
- Choi, M. Y. (2012).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troversion-Extroversion, Appearance Recognition, Locus of Control to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 Choi, S. K. , Kwak, K. T., & Lee, B. G. (2012). The Study of Influential Effects of Mobile SNS Attachment and Communication Traits to the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the SNS interaction.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1), 159-200.
- Cross, R. L., & Parker, A. (2004). *The Hidden Power of Social Networks: Understanding How Work Really Gets Done in Organizations*. Boston, Massachusetts: Harvard Business Review
- Coyle, C. L., & Vaughn, H. (2008). Social networking: Communication revolution or evolution? *Bell Labs Technical Journal*, 13(2), 13-18. doi:10.1002/bltj.20298
- Ellison, N.,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Godelief M. J. Mars., Gertrudis I. J. M. Kempen., Marcel W. M. Post., Ireen M. Proot., Ilse Mesters., & Jacques T. M. van Eijk. (2009). The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 development and clinimetric properties in older adults with a chronic physical illness. *Qual Life Res*, 18, 1207 - 1218, DOI:10.1007/s11136-009-9537-4
- Grinter, R. E., & Palen, L. (2002). *Instant messaging in teen life*. Paper presented at the 2002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 Ha, H. J. (2008).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Hoffman, P. (2008). 'But are we really friends?'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community in undergraduate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69. (UMI No. 3323971).
- Hsu, C. W., Wang, C. C., & Tai, Y. T. (2011). The closer the relationship, the more the interaction on Facebook? Investigating the case of Taiwan users.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4(7-8), 473-476. doi:10.1089/cyber.2010.0267.
- Hwang, S. W., & Park, J. J. (2011). Facebook, What's the Problem?-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sychological Problems.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91, 68-95.
- Hwang, Y.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circle activity participation and sociality development in youthhood*(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o, H. R.(2004). *Research about messenger utilization for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S. J. (2012). *The Study on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of the senior citizens*. Hanseo University, Chugnam.
- Kim, J. M., & Hong, Y.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pending and Participation Sports Circle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13(1), 159-170.
- Kwon, J. D., & Sohn, E. S. (2010), The Influences of Self-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Age Discrimination upon the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elfare for the Aged Journal*, 49, 81-106.
- Lee, J. H. (2006).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of Korean Rural Elderly with a Focus on Gender and Age-group Differences. *Korean Journal Community Living science*, 17(2), 15-30.
- Leung, L. (2002). Loneliness, self-disclosure and ICQ ("I Seek You")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5, 241-251.
- Nam, K. E., & Kim, H. S. (2011). A Study of Media Creativity in Social Media Communication.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2(1), 171-182.

Schiano, D. J., Chen, C. P., Ginsberg, J., Gretarsdottir, U., Huddleston, M., & Isaacs, E. (2002). *Teen use of messaging media. Post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Minneapolis, Minnesota.

Shin, S. Y., & Lee, S. W. (2012).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 Focusing on Twitter &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Cybercommucation Academic Society*, 29(4), 181-223.

Son, J. K., & Cho, W. W. (2005). Social Activities, Social Relation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Sixty Years and Older.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6(2), 5-3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WHO; 2001.



## Abstract

###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Network Service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im, Tae-June, Park, Yun-Ju, Lee, Seul-Ki, Lee, Yoon-Hee, Ji, Si-yeon, Jeon, Byoung-Ji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SNS)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it tries to present the basic data of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Method** : Students that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in K University was done to target 136 people. SNS strength was measured to be stored in the mobile phone SNS friends and KakaoTalk average call times. measurement tool of social participation was used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MSPP) as modified by Godelief et al.(2009). MSPP is composed of formal social participation(undertaking) and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contact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and contact with family) item.

**Results** : The study show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SNS friends and Undertaking item and between KakaoTalk average call times and Contact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item( $\alpha=0.05$ ).

**Conclusion** : College student SNS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showed a correlation. Therefore, The higher the SNS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is determin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aily life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SNS, SNS Strength, Social Network Service, Social Participation, University student

[부록]

##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MSPP)

아래의 항목들은 최근 4주 동안했던 사회참여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신중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 4주 동안 0회  
 주당 1회 또는 그 이하 = 4주 동안 1~3회  
 주 당 1~2회 = 4주 동안 4~8회  
 주 3회 이상 = 4주 동안 9회 이상

문항	검사 문항	없음	주당 1회 또는 그 이하	주당 1회~2회	주당 3회 이상
약속 활동	1	당신은 운동 또는 팀 스포츠(축구, 농구 등)에 참여 했습니까?			
	2	당신은 동아리,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3	당신은 문화생활을 위해 영화관, 박물관, 카페 등을 간 적이 있습니까?			
	4	당신은 외식을 했습니까?			
	5	당신은 술집이나 카페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6	당신은 대중적인 행사(캠페인, 축제 등)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7	당신은 여가시간에 다른 사람과 게임(컴퓨터게임, 보드게임 등)을 했습니까?			
	8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놀러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9	당신은 임원(간부, 과대, 부과대, 위원회)들과 일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10	당신은 봉사 활동을 했습니까?			

친구 및 지인	1	친구에게 연락을 얼마나 했습니까?			
	2	친구나 지인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연락이 온 적 있습니까?			
	3	당신은 친구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한 적 있습니까?			
	4	친구와 함께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몇 번 했습니까?			
	5	친구와 술을 몇 번 먹었습니까?			
	6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준 적 있습니까?			
	7	친구들에게 조언을 몇 번 했습니까?			
	8	친구들이 대화 상대를 필요로 할 때 몇 번 했습니까?			

가족	1	가족에게 연락(문자, 전화로 안부 묻기)을 얼마나 했습니까?				
	2	가족이 당신에게 연락을 몇 번 했습니까?				
	3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연락을 몇 번 했습니까?				
	4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몇 번 했습니까?				
	5	가족과 함께 외출 또는 외식을 몇 번 했습니까?				
	6	가족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몇 번이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7	가족에게 조언을 몇 번 했습니까?				
	8	가족들이 대화 상대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까?				